

# 장마철 코앞 '재해 비상'

## 대형공사장 19곳·재해위험지구 10곳 피해 우려

광주지역 상당수의 대형공사장과 재해위험지역이 장마철 토사유출·배수구폐쇄·침수피해 등이 우려된다. 더욱이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이른 18일경부터 시작해 장마기간도 37일로 5일가량 길어지고, 집중호우도 심해질 것으로 보여 철저한 예방대책이 요구된다.

▷대규모 공사현장 비상=광주시가 지난달 말부터 8일까지 시내 대규모 건설공사장에 대해 풍수해 대비책을 점검한 결과, 50억원 이상 42개 현장 가운데 19곳이 침사지 설치와 가배수로 정비 등 수해방지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합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제2시립묘지 2 단계공사, S기업이 시공중

인 하남 2지구 택지조성공사의 경우 사면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토사유출이 우려된다.

▷건설의 양산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사면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토사유출 및 붕괴우려가 높아 침사지를 설치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부 현장에서 장마철 대비 및 절개지 토사유출 방지대책, 안전관리 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며 "해당부서와 시공 업체에 통보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재해위험지구는 공사 중"=용복설치·배수로 정비·하천 정비 등이 필요한 광주 시내 재해위험지구는 10곳(동·북·남구 각 1곳, 광산구 7곳)이 가운데 단 1곳도 정비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마를 맞게 됐다.

남구의 경우 붕괴위험이 있는 방림동 산 1-1번지(면적 1만2천㎡)에 660

㎡의 용복설치가 늦어지고 있다.

북구도 동림동 동림 3지구의 상습침수를 막기 위해서는 하수관로 연결공사가 필요하지만, 예산이 없어 방치하고 있다.

동구도 상습침수지역인 소태천 하류 소태동 686번지 일대에 배수로 확장공사를 장마가 끝난 올해 9월에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해위험지구 7곳으로 가장 많은 광산구의 경우 약 2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현재 노후장비 정비·펌프장 건설·하천 정비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공정률은 동곡(본덕동)지구 85%, 용봉(용봉동)지구 30%, 칠성(삼계동)지구 50%에 그치고 있다. 신가동 상습침수 지역도 아직 침수피해 대책이 없다. 산막동 산막 소하천(2.2km)제방공사, 운남동 게이트 펌프와 배수로 정비사업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무등산 사랑** 유태명 광주시 동구청장과 주민 등 1천여명이 11일 오전 무등산 중심사 계곡 청소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쓰레기 2.5t을 수거하고, 등반객들을 상대로 자연보호 캠페인도 벌였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 "동림2·진월·효천택지개발은 취득·등록세 대상" 市, 주공에 46억 지방세 과세

### 주공 "부당과세" 심사 요구

광주시에 주택공사에 지방세 감면 조항을 잘못 해석해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며 거액을 과세해 파장이 예상된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른 이같은 과세를 수도권 등 전국의 택지 개발에 적용할 경우 주택공사는 수천억 원대의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11일 "주공 전남지역 본부가 97년 이후 시행한 북구 동림 제2택지지구와 남구 진월지구, 효천지구 등 3곳의 택지 개발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으로 지난 3월 46억여 원을 과세했다"고 밝혔다. 과세액은 대상 택지 60만 1천여㎡에 대한 과세 표준액에 취득가액(687억원)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와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과 가산세 등이 더해져 산정됐다.

광주시는 이번 과세와 관련, 지난 97년 지방세법 감면조항(제289조)에서 '대지의 조성 및 공급' 조항이 제외된 만큼 당연히 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현 지방세법 시행령은 감면 대상 사업으로 주택공사법 3조(업무) 1항 1,3,5,6,8호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과세 논란은 이를 포함 중 97년 주택공사법이 개정되면서

5호인 '대지 조성 및 공급'이 4호로 바뀌면서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아예 빠진 것이 발단이 됐다. 광주시는 감면 조항의 일몰제(한시법)가 적용돼 해당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효력이 상실되는 만큼 관련 조항이 신설되지 않으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주공 설립 목적 및 주택건설과 공급, 불량주택 개량에 있는 만큼 지자체나 국가 위탁이 아닌 제3자(민간)에게서 이익을 챙겨며 택지를 공급하는 것까지 세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주공 측은 예초 주택공사법 3조(업무) 1항이 개정되면서 실수로 5호가 4호로 내용 변경 없이 바뀌기만 했기 때문에 입법상 단순 실수에 불과하며, 단순 입법실수는 법적처리의 유권해석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공 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일단 해당 금액을 납부한 뒤 감사원에 부당과세 심사 요구를 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주공이 외환위기 이후 수도 원대의 수도권 택지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번 과세가 인정될 경우 전국 지자체의 예상 과세액은 3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김주정기자 jnews@

# 사회복지 체감수준 높인다

## 市, 빈곤·의료 봉사 맞춤형 서비스 등 10대 시책 발표

광주시는 11일 사회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10대 시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체감지수도 함께 높이기 위해 복지 인프라 구축과 고객 만족도 향상 등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위기상황 긴급 통합지원단 구성 ▲정신요양시설 기능 보강 ▲영락공원 자연장 시설 설치 ▲망월·영락공원 등 장묘시설 서비스 강화 ▲저소득층 탈빈곤을 위한 '희망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창업지원 ▲사회복지 홍보역량 강화 ▲고객만족도 제고 ▲사회복지 관계자 역량 강화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 등 10대 목표를 세웠다.

시는 이에 따라 자치구별로 화재나 수해 등 긴급 지원사항 발생에 대비,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경찰과 소방관서·자원봉사센터 등으로 구성된

긴급 통합지원단을 구성해 빈곤·의료·심리·자원봉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시는 또 '빛고을 정신요양원'(나주시 다도면)의 개방병동을 확대하고 기부식물을 활용하여 결식아동·노숙자·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국비 등 사업비 9억4천만원을 들여 내년 4월까지 영락공원 유보지에 자연장 시설을 시범 설치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를 보급하기로 했다. 시립묘지(망월·영락공원)에는 가족 납골묘·실내 및 실외용 납골함·사이버 추모관 등을 설치하고 장사 절차도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연말까지 33억4천만원을 투입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1천 800여 명에게 간병·가사지원 등 희망의 일자리에 참여토록 하고, 이들의 창업지원을 위해 7천만 원 한도에서 점포 전세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광주시 사회복지 10대 시책	
▲위기상황 긴급 통합지원단 구성	▲정신요양시설 기능 보강
▲영락공원 자연장 시설 설치	▲망월·영락공원 등 장묘시설 서비스 강화
▲저소득층 '희망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창업지원
▲사회복지 홍보역량 강화	▲고객만족도 제고
▲사회복지 관계자 역량 강화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

## "區 새청사 건립 부지 갖춘 곳 우선 지원"

### 박광태 광주시장 밝혀

박광태 광주시장은 자치구들이 요청한 신청사 건립 예산지원과 관련, "청사 부지 등 여건이 갖춰진 곳부터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오후 자치구 순방차 서구청을 찾은 박 시장은 출입기자단과 만나 "남구와 북구에 이어 서구까지 신청사 건립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 시가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며 "부지 준비 등 제반 요건을 먼저 갖췄는가에 따라 지원 순서를 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서구청의 경우 인접해 있는 조달청이 2009년 이전할 예정이어서 부지 준비 작업이 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예산지원을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어 서구가 "전국체전과 디자인비엔날레 등 굵직한 행사의 중심에 서있는 만큼 철저히 준비를 해달라"며 "청사 이전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밖에 없다"고 당부했다.

박시장은 지난 8일 동구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 "구·시·국회의원 등 선출직 모두를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일순서로 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서구청의 경우 인접해 있는 조달청이 2009년 이전할 예정이어서 부지 준비 작업이 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예산지원을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 광주 원어민 교사 10개교당 1명뿐

광주지역 일선 학교는 모두 278개 교인 반면 배치된 원어민교사는 28명에 불과, 10개 학교당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위원회 윤봉근 위원은 11일 제159회 임시회 질의를 통해 "28명의 원어민교사가 학교를 돌며 영어회화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10개 학교당 1명뿐인 10%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이어 "원어민 교사 배치 수를 마다 않고 있으며, 영어 전문화 수를 마다 않고 있으며, 영어 전문화 수를 마다 않고 있는 등 부작용도 적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윤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28명의 원어

민교사가 광주학생교육원과 45개 초·중·고등학교에 분산 배치돼 근무 중이다. 학교 수 대비 10%의 배치율에 불과, 이는 100%에 가까운 경기도와 천안·공주, 하남시 등과 큰 대조를 보이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수원(38%)이나 성남(40%)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수치다.

이로 인해 회화를 중심으로 한 영어교육의 질적 저하는 물론 학기 중 고액과외, 방학 중 해외연수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

또 배치된 원어민교사 역시 1개 중학교에서 6개월 동안 주당 22시간 수업하도록 계약한 상태여서 실제 학생들의 주당 수업시간은 10학급을 기준으로 한 학급당 2시간에 불과하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MODISH 기품과 중후함으로 완성되는 엔틱의 명품**

# 모디쉬갤러리 Sale

www.modishgallery.co.kr

**모디쉬갤러리 오픈 세일 이벤트**

**30% 오페라 침실세트**  
장롱, 화장대, 침대(메트리스별도), 협탁  
몽블랑 2+2 가족쇼파 (5조한정) 2,900,000 → 1,400,000원  
아그네스 2+2 가족쇼파 (5조한정) 3,250,000 → 1,600,000원  
황옥 4인 대리석식탁 (5조한정) 1,300,000 → 690,000원  
엔틱전환기 (선착순 20명) → 39,000원

**미가엘 침실세트(원경장롱12자+화장대세트+침대(4)4인용)**

**Open기념 황토침대, 장수온돌침대 한정판매**

HS-6720 비토 1,990,000원 (5조한정판매)    USD-비토 1,470,000원 (5조한정판매)

미가엘 5단서랍장    아사아 2.2 소파    미가엘 화장대    오메가 대리석 식탁세트

모디쉬갤러리 광주전시장 ☎10621252-3001~2 / 금호월드 7층 ☎10621350-8764

**두메 21세기 식문화를 재창조 하는 젊은 기업**

- 외식업계 15년 노하우로 어머니의 정성과 손맛을 드립니다.**  
이·취임식, 창립기념식, 세미나, 회갑연, 피로연, 출장뷔페, 시제상, 도시락 등 기타음식행사
- 어머니 정성 그대로 담은 100% 순수 국내산 맛깔찬 김치!**  
30여종의 다양한 김치 생산으로 홍콩, 대만, 일본 등 수출 2003,2004 광주김치대축제 최우수상 수상
- 학교, 병원, 기업체, 관공서 등 위탁급식운영 및 식자재 납품**

**두메외식산업(주)** www.dumept.co.kr  
**두메김치(주)** www.dumekimchi.co.kr  
**두메푸드시스템(주)** www.dume1992.co.kr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401-2 TEL.(062)571-6000 FAX(062)571-6030